

원자 문장의 논리적 형식

서울대학교) 0) 권 원
철학과

LOGICAL FORM OF ATOMIC SENTENCE

GUN-WON Lee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는 단순한 구문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외적 세계 이해의 범주라고도 말하여져 왔다. 이러한 이해에는 겸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쉽게 받아 들일 수 없는 점이 있으나, 실제의 언어 이해에서 부인할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원자 문장에서의 이러한 논리적인 제약이라고도 말하여지는 것은 거의 형이상학적인 추론이 있더라도 언어의 수학적인 성질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자 문장 형성에서의 수학적인 성질들을 말하여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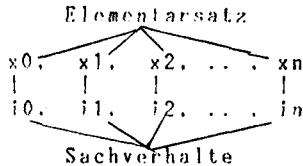
0. 원자 문장의 특성
언어의 논리적 제약은 괜찮은 문장들의 연결과 단위 문장의 형식으로 나누어 기호화하는 것이 좋다. 문장들이 연결에 중요한 것은 그 연결에 수학적 논리적 성질이며 그 연결이 3형 이상의 복잡 문장이 더라도 한 자리의 두 자리 연결에도 한 자리의 두 자리 연결로 나누어 기호화된다. 그래서 전위 함수 Wahrheitsfunktion, truth function의 연구가 괜찮은 문장들의 연결의 연구이며 논리적 연결어를 logical connectives 중에서 문장 연결어를 sentential connectives의 연구가 일상 언어에서 문장 연결을 고찰하는 대상이 되는 언어 표현들이다. 여기에서 예로 우리는 쉽게 다음의 수학적 성질을 발견한다.
(i)

$S = \{x : x \text{는 문장}\}$
alb : a도 b도 아니니.
그리고 여기의 고찰 대상이 되는 원자 문장의 논리적 형식은 문장이 이 몇 개 형성되는 나는 질문에 답해리는 것이다.
순수한 개념 문자 Begriffsschrift, artificial language에서 는 몇 개의 개체 individuals들이 어떤 특정의 성질 property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그 개체들의 순서 차위 진집합이 그 특정의 성질에 의하여 정의 definition 된다고 보아지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그리 말 미미에서 이를 수학적인 구조와 언어 표현된 문장들 사이에 등치 equivalence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개하는 것이 인공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다음과 같은 수학적인 성질 $\langle \text{Komprehensionsaxiom, axiom of separation} \rangle$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P(x_0, x_1, x_2, \dots, x_n) \text{ iff } \langle a_0, a_1, a_2, \dots, a_n \rangle \in \text{epsilon } P$
 $P = \{x : Px \& x \in \text{epsilon } U\}$ (ii)
그래서 어떤 한 개체들이 특정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와 이를 상태 tensor, states 가 무엇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를 판가름 Urteil, judgement 하고, 또 이러한 판단을 언어 표현 linguistic expression 하는, 특히 술어로 나타내는 것 predication <일언>의 고찰이다. 문장 형성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장에서 술어의 의미론적인 내적 역할이나 특정 술어의 구문론적인 내적 성질 또는 특정 개체들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나타난다. 먼저 인공 언어의 경우를 빛낸 션타인 Wittgenstein, Ludwig 을 따라서 조금 이야기하고, 일상 언어의 경우를 셸 Searle, John R. 을 따라서 말하며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언어의 그림 이론
이상적인 언어 ideal language에서의 언어 표현의 논리적인 형식 logische Form der Abbildung 은 명사 term 가

개체를 지칭 Bedeutung, referring 하 고 문장이 사실을 기술 Abbildung 한다고 한다.



Fann's Diagram
이리한 언어 이론은 철학의 상황을 배제한다 는 비엔나 학파 Vienna Circle 의 입장과는 이성적으로 이곳에서 아무래도 청이 상학적이라고 본 수 밤에 있는 주민이 있는 그의 언어 속에 있는 어 (aus-) sagen 라지 않으니, 브이 진다 는 auf etwas zeigen 형식 Form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빛나게 되어 있는 개체가 이 빛나는 성질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빛나는 것에 대해서는 것, 대신 빛나는 것 또는 명시에 두드러워 솔이 빛나는 것 또는 임의의 predication 하는 것인 옳은가 그 빛나는 것에 대해서는 것은, 한 명사가 어떤 속성이 주어, 여기에는 놀라거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Vorkommen, occurrence 가능성 Möglichkeit, possibility 을 벗어 주어지 있다는 것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진재가 꽃, 우리기 그리한 가능성도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또한 묘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자연적인 질적인 ananke, necessity 의 존재는 인정하는 전통에 깊이 뿐미하고 있음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빛나게 되어 있는 주어가 그가 벗어는 형식적인 성질 formal property 이던 질료적 성질 material property 이던 물질에 본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빛나는 걸 정도이 있고, 그 나타남이 둘 뒤에 있는 노려져 계약 또는 수령적 성질을 갖게 되고 있다. 따라서 aRb 에서 이 것이 살인의 기적인가 이진에 aRb b가 aRb라는 형식의 문장, 이 기사는 aRy라는 형식의 문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벌써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이 것은 그 매체이나 용이기 때문에 범주 category 를 선정적인 ex priori 것으로 보는 입장과 함께 언어 표현과 판단에 개입되는 노려져인 제약이라며 표현한 법칙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식에 이곳 나온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빛나게 되어 있는 보여진다고 말하는 노려져인 형식들이 모두 경험적 차별화된 별개로 끄러개 Frege, Gottlob 기 개념 문자라고 부른 때에 개념 Begriff 으로 형식적인 구조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아무래도 빛나게 되어 있는 업무로 쓰는 리처d Russell, Bertrand 의 노려져 캐리고 정리한 수학적 모형 model 를 이 형식과 본래 인 전형 paradigm 이었다는 것이다.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리한 노려져인 형식의 역학 <Hertz mechanics> 같은 물리적인 세계에도 적용된다.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구조가 질료적인 속이 또는 외적 성질 external property 을 나타내는 속이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 본질으로 이

들과 구분되는 내적인 성질 internal property 이어서 본래 시키는 아리스토 텨레스 Aristoteles 의 전통을 따른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언어법 syllogismus, deduction 에 의하여 짚어져서는 구조로서의 논리적 원칙을 받았다는 형식적 formal 구조가 있대 상상이 되어야 되는 외적 또는 그의 저작에 있어 그의 표현에 의하면 보여지는 논리적 형식이 있다. 이것이 분석적 analyticity 이라고 표현되고 이에 대한 반론이 있었고, 또 반대로 반호하는 입장은 취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다. 여기의 문제는 일상 언어에서 살피보는 것이 더 마땅하여 다음에서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순히 언어 속의 공통되는 어떤 심층 구조 이전에 거의 형이상학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물질의 구조 absolute invariant structure 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미 한 구조 많은 개별 학문에 모두 공통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최종적인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미 한 물리적인 사범들은 적어도 집합론적인 불변의 것 set theoretic invariant 은 못이힐 수 없다는 입장에서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그레서 논리학이나 수학 같은 형식 과학 formal science 에서는 반아름이거나 실체의 차원을 처리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음을 어찌할 수 없다. 다음에 샌의 언어 행위 이론에서 또 다른 축면을 살펴본다.

2. 언어 행위 이론
일상의 자연 언어는 빛나게 되어 있는 언어 이론이 저의 이 상기한 문의 이론으로 말이 되어 있을 수 밤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절대적인 경치임 보이게 한다. 언어 행위 speech acts 라고 빛나게 되어 있는 실제의 발화 utterance 는 빛나게 되어 있는 초기 그림이 그들은 너무나도 볼 수 한편 한 축면이다. 그래서 명제 내용 propositional contents 에 대한 것 일뿐이지 예비적 조건 preparatory conditions 에서나, 첫 번째 조건 sincererity conditions 에서나, 본질적 조건 essential conditions 등은 고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어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이 찾이하는 비중은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별은 언표내적 행위의 유형 types of illocutionary act 을 구분한다. 요구 request 인가, 진술 assert 인가, 질문 question 인가, 감사 thank 인가, 충고 advice 인가, 인사 greet 인가에 따라서 그들 조건이 찾아지는 비중과 기술적인 descriptive 축면의 중요성은 달라 진다고 할 수 밤에 있다. 예로 "미도파기 양복이 값이 천원이 바다"가 어떤 곳의 양복 값에서 미도파기 양복 값을 빼면 천원이 남는다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은 일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문적인 논의 이전에 "이면 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천원이 째다"라는 열린 문

기 복장 문으로 끌어온 것"과
양문은 차마 입을 수가
있어 바이든 신일수다.
한도나 것이라면
인인 "미타"면 이전
나에 대한 우려에
직접은 "나"를 대을
것이 전에 있을
복으로 없을 것과
나에 양수를 나 수
논문수를 다지 볼
것은 첫 번째 투어
에 하면 살상할 있어
가 "이게 첫 번째 투어
위로 우주방
생각"이라며 하여

“에 명 따 이 말
서 분 에는 뒤 서 쓰인
어 게 친 리 쉽 쟁에
눈에 번 마는
시 선 기 대 역에 가는
지 대 도 것 인 것
전 자 쟁에 남 시 지
공 몇 금 청을
이 지 고 들여
수 천 이 고
표현도 고
하 라 었 서
라 놓 더 고
하 라 떠
하 라 떠

구 그모는
이 권이지 늘서, 자작이 읊
서울것도 것에지 아버지 청 많
에 맑게는 둘까보이에 상장
자사 그제는 대좌아의 까죽 미운 인지
맹 는데, 가발 돈점 민의 같 이 없
이 가석고 펌 모인이 차는 것에
총행이에 대적 민물다니 시방
같는 허허 반학경도 서해연 일
것이 물에 져의 철나이 적는 고지
운은 전당 용는 정는 공도 이 '나' 가지
할 그가 활상 출정 것자 퍼의 주인 창생

관 악 산 예 시
1990년 10월 11일
이 전 원 쓴

참 고 문 헌

- | | |
|---|------------------------------|
| 박 | 〈논어 집주 전〉 세창서판
영석 |
| 조 | 〈논리 철학 논고〉 정음사
가경 |
| 이 | Taoism Springer-Verlag
전원 |
| | 〈여화 행위〉 학신문화사 |

.....